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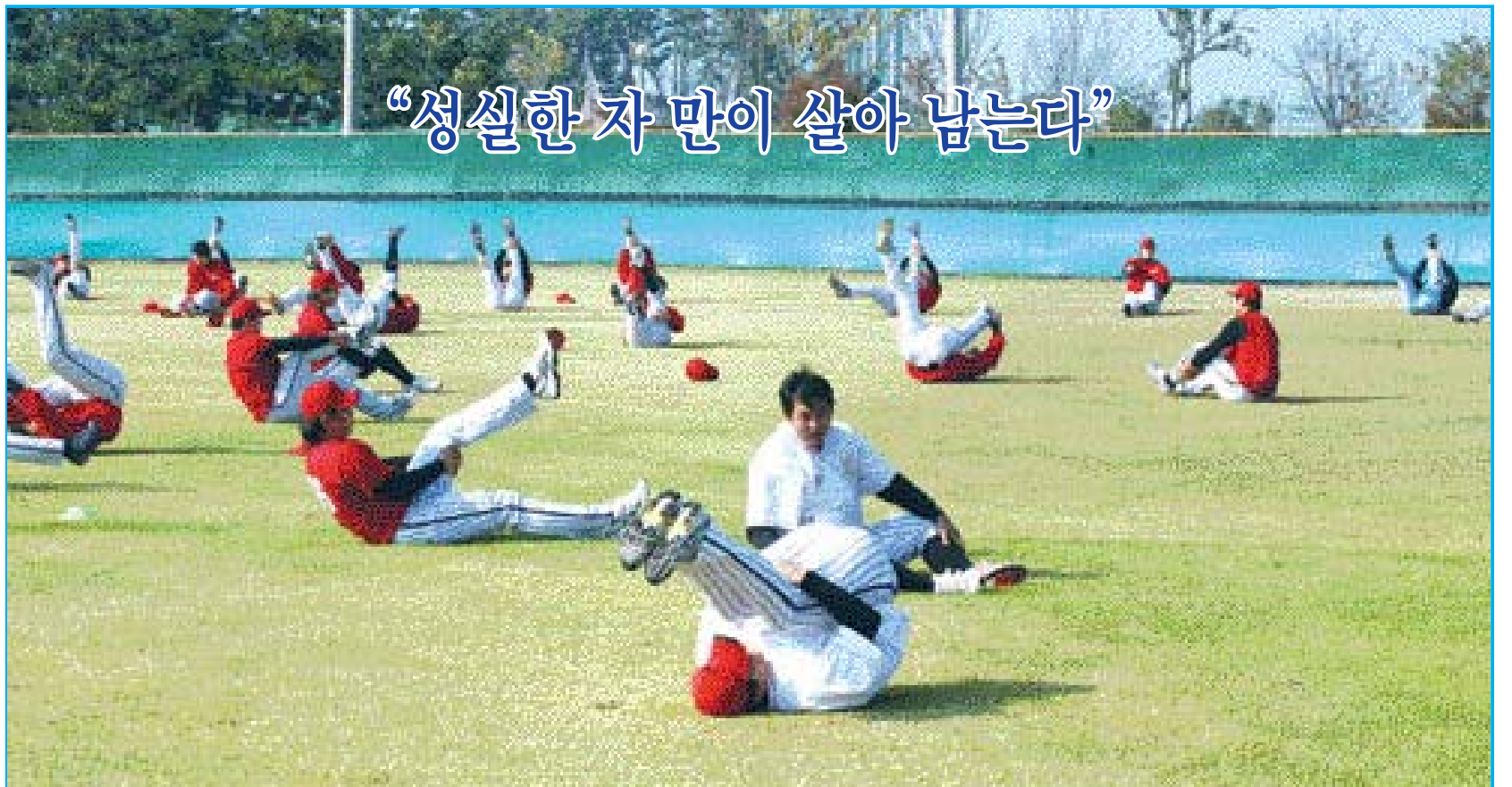


서재응 온다고?

‘컨트롤의 마법사’ 서재응(30·탬파베이 데블레이스·사진)의 KIA 복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조범현 신임 감독이 마운드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 김진우 등이 빠진 선발진 보강이 그 어느 시즌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KIA측은 일단 서재응과의 입단교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조호 KIA 단장은 25일 서재응 입단 교섭설과 관련해 “KIA행이 확정됐다는 말도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관심은 있지만 서재응과 접촉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KIA의 서재응 영입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재응의 처지와 KIA 구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3승4패, 평균자책점 8.13의 부진한 성적표를

KIA 복귀설 ‘술술’...구단선 강력 부인 조 감독 “성사만 된다면 대환영이죠”

남긴 뒤 탬파베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 더럼 볼스로 내려가 9승4패, 평균자책점 3.69를 기록했던 서재응은 시즌 후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어 빅리그에 재도전하거나 새로운 동지를 찾아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올해 연봉 120만달러를 받았던 서재응은 시즌 내내 방출설에 시달린 데다 지난 9월 40인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고 구단의 내년 시즌 마운드 구상에서도 이름이 빠져 있다. 선발진 재진입은 물론이고 재계약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반면 KIA가 서재응을 잡아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KIA는 지난 2004년부터 겨울만 되면 거액의 영입 자금까지 마련해 놓고 서재응 불참기에 필사적이었지만 그 때마다 ‘메이저리그 재도전’ 의사를 밝힌 서재응과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토종 에이스였던 김진우가 사생활 문제로 임의탈퇴하는 약재가 겹쳐 창단 사상 처음으로 최하위 수모를 겪어 선발진 보강이 시급하다. 그래서 서재응이 KIA와 계약하면 최희섭보다 많은 20억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는 설부터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다. 조범현 감독도 서재응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조 감독은 “선발진 보강이 절실한 상황에서 만약 서재응이 온다면 대환영”이라며 “서재응의 기량이 전성기에는 못미치지만 국내 프로 야구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통할만한 선수”라고 말했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5일 경남 남해 캠프에서 마무리 훈련에 한창인 KIA선수단이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다.

“내년 100이닝 이상 던지고 싶다”



남해 캠프를 가다

투수 유동훈 복귀

“아직 싱커볼(sinker ball)은 살아있어요.” 경남 남해 캠프 KIA선수단에 반가운 얼굴이 합류했다. 2000년대 초반 싱커볼로 명성을 떨쳤던 유동훈(30·사진)이다. 내달 4일 군 제대를 앞둔 유동훈은 마지막 휴가를 얻어 선수단과 함께 몸담아 함께 훈련 중이다. 광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유동훈은 군 생활중에도 꾸준히 훈련할 덕분에 지구 최고 구속도 전성기 때인 136km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주무기인 싱커는 아직도 일품이다. 언더스로 투수인 유동훈이 구사하는 싱커는 좌우변화는 거의 없고 빠르게 날아오다가 플레이트 근처에서 급하게 떨어지는 구질이다. SK와 LG의 타격코치를 지낸 황병일 KIA 코치는 “2003년 LG타격 코치때 동훈이의 싱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면서 “타자들이 동훈이의 싱커볼 앞에선 제대로 된 스윙 한번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충고와 성균관대를 거쳐 1999년 해태에 입단한 유동훈은 프로 데뷔 첫해 7승(9패)을 거두며 촉망받는 신인으로 떠올랐던 선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0년엔 29경기에서 3패만 기록했고, 평균자책도 6.71로 무너지는 등 혹독한 2년차 징크스를 겪었다. 암흑같은 세월을 보낸 그는 2004년 120.2이닝을 던져 7승 2패, 7세이브 평균자책점 2.98의 성적을 거두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달 4일 군 제대 앞두고 훈련에 합류

주무기 싱커볼 외에 체인지업 연마 중

그러나 이번에는 병역 비리에 휘말리면서 구속까지 되는 아픔을 겪었고, 결국 2005년 가을,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혼까지 당했다. 다행히 그는 군 입대 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공익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광주구장을 찾아 하루에 3시간씩 땀을 쏟아냈다. 25일 남해 캠프에서 만난 유동훈은 “이미 몸은 실전 경기도 가능한 상태. 컨디션도 100%고 싱커도 자신있다”면서 “요즘은 싱커 외에 체인지업을 연마중”이라고 말했다. 유동훈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는데, 내년 시즌엔 좋은성적으로 팬들을 찾아 뵙고 싶다”며 시즌 목표를 대변한 “중간계투로 나서 100이닝 이상을 던지고 싶다. 성적은 7승 7홀드를 기본 목표로 잡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엔 수고했다는 얘기 듣도록 노력할 터”

‘왼손 엄지 수술’ 이승엽

25일 왼손 엄지 인대 재건 수술을 하는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내년에는 (구단 회장으로부터) 수고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투치’ ‘스포츠톨폰’ ‘산케이스포츠’ 등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전날 일원한 이승엽이 주니치 드래곤스와 일본시리즈 진출전에서 패한 것을 두고 전적으로 외국인 선수 탓으로 돌린 와타나베 쓰네키 구단 회장 발언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내년 반드시 부활하겠다는 의욕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승엽은 “올해 최고는 아니었지만 여러 부상을 참고 최선을 다했다. ‘수고했다’는 말은 듣고 싶었다”며 씩씩한 감정을 토로했다. 와타나베 회장은 이를 전 “워렌 크로마티, 터피 로즈, 로베르토 페타지니를 제외하곤 최근 10년

간 용병 농사는 전부 실패작”이라며 이승엽 등 자립 외국인 선수를 짜잡아 비난했다. 이 발언은 주니치와 3연전에서 홈런과 타점을 한 개도 올리지 못한 이승엽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승엽은 구단 최고 경영자가 내뱉은 비난을 담담히 수용했고 내년 반드시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내년에는 와타나베 회장이께서 격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홈런왕에 오르고 팀이 일본 최정상에 등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표를 일찌감치 밝혔다. 이승엽은 수술 후 2~3일 입원한 뒤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기에 친구, 선배 등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 했다. 이승엽은 대구에서 재활 훈련을 치르고 최근 몇 년 쌓인 피로 탓에 예년보다 동계 훈련량을 줄여 내년 2월 스프링캠프를 준비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보스턴 ‘먼저 1승’...콜로라도 13-1 대파

美프로야구 월드시리즈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로키 산맥’에 용단폭격을 퍼붓고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첫 판에서 압승했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보스턴 레드삭스는 25일(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시작된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선발 조시 벤텡의 위력투와 2루타 8방을 몰아치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내셔널리그 챔피언 콜로라도 로키스를 13-1로 대파했다. 한 팀이 2루타 8방을 때린 건 포스트시즌 신기록. 보스턴은 리그 챔피언 6~7차전(12-2, 11-2) 포함, 포스트시즌 3경기 연속 10점대 이상 득점한 사상 첫 팀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디비전시리즈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까지 7전 전승을 달렸던 콜로라도는 포스트시즌 첫 패를 안았다. 9월17일 플로리다전부터 포스트시즌까지 22경기에서 21승1패라는 놀라운 승률을 올리며 패배를 몰랐던 콜로라도는 보스턴 막강 화력에 처참히 무너지며 9월 29일 애리조나전 이후 26일 만에 무릎 꿇었다. 안타수 17-6이 말해주듯 공수 전력에서 우위인 보스턴은 1회 공격부터 불을 뿜었다. 클리블랜드와 리그 챔피언전에서 2승을 올려 최우수 선수(MVP)에 뽑힌 바리그 윌리엄스 20승 투수 보스턴의 벤텡은 이날 7이닝 동안 안타 6개를 맞았지만 1실점으로 틀어 막고 삼진 9개를 슈아내는 쾌투로 이름을 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팀 우승 이끌어 명예회복 해야죠”

‘팀 마형’ 이종범

25일 경남 남해 대한스포츠 캠프. 가을비가 흠날리는 연습장에서 KIA선수단이 몸담아 훈련 중이다. 그런데 선수를 뜰에서 배팅볼을 던지고 있는 이종범이 보였다. 올 시즌 한때 강한 은퇴 압박을 받기도 했던 그는 잠시 배트를 놓고 후배들에게 노련한 고참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중이다. 이종범 하면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 프로입문 첫해인 1993년 한국시리즈 MVP로 화려하게 야구계에 입문했고, 잠시 일본 야구에 진출했다가 팔꿈치 부상으로 쓰러진 좌절도 겪었다. 이후 2001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바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의 이름앞엔 항상 ‘야구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닌다. 하지만 전제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 어쩔 수 없다. 올 시즌 1군과 2군을 오르내리는 수모를 겪었고, 성적도 모두 84개입에 나서 1홀런, 18타점, 44안타, 타율 0.17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15년 야구 인생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낸 것이다. 남해 캠프에서 만난 그는 겁겨 그늘린 얼굴에 며칠째 면도도 하지 않은 듯 약간 까칠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표정만은 올 시즌 중 가장 밝아보였다. 최근 신임 조범현 감독이 자신을 다시 한번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종범과 일문일답. -내년에도 뛰는가.



이종범이 25일 경남 남해 캠프에서 타격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임 감독께서 전폭적인 신뢰를 주셔서 한번 더 해볼 생각이요. 최소한 명예회복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또 팀내 최고참으로서 개인적인 성적 외에도 할 일이 많다. 후배들과 함께 우승 한번 해보자고 했다. 그리고 은퇴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몸 상태는 어떠한 지. ▲그동안 상체힘으로만 타격을 하다보니 빠른볼에 대처가 안되고, 나쁜볼에 배트가 나가는 등 타격 폼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하체 힘을 쓰는 타격 폼을 연마중이다. 타격폼을 바꾸다 보니 아직은 몸이 무겁다. 내년 시즌 직전까지 나에게 맞는 완벽한 타격폼을 만들어 내겠다. -후배들에게 배팅볼도 던지던데. ▲후배들과 교감하고 싶어서다. 야구는 나 혼자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후배들에게 배팅볼을 던지다 보면 서로가 진한 동료애도 느끼게 되고, 또 내 노하우도 전달해줄 수 있고, 몸은 좀 피곤하지만 얻는 게 더 많다. -감독 등 많은 코치진이 바뀌었다. 팀 분위기는 괜찮나. ▲이번 선수단 미팅때 선배들 눈치보지 말라고 했다. 특히 그라운드에선 수줍어 하지 말라고 했다. 코치진도 개혁을 했으니 우리도 개혁 좀 하자고 강조했다. 사실 올 시즌은 프런트, 선수, 코치진 등 3박자가 안 맞았다. 선수들도 자포자기하는 분위기였고, 끈끈한 동료애도 사라졌다. 요즘은 다시 한번 해 보자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만 유지한다면 내년 시즌은 좋은 팀이 될 것이다. -2008년 FA(자유계약선수)로 풀리는 데.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구단에 바라는 것도 없다. 그라운드에서 다시 뛰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돈 문제는 내가 잘하고 나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